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3년도 제33호

SBS 단독보도 (끝까지판다)

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비공개"라며 불응한 한체대

화강윤 SBS기자

② 김현수 전 인권위 단장 "체조계 계약금, 폐쇄적 문화 때문"

전형우 SBS기자

실업 운동선수 성폭행 혐의...복구청 "사실 몰라"

20대 여성 성폭행한 실업팀 선수... 퇴직금 1800만원 지급 논란

윤예림, 신진호 서울신문기자

올림픽 테스트 이벤트대회서 단체전 등 휩쓸어

세계선수권 부진 털었다... 한국 양궁, 파리 4차 월드컵 金4

김지한 매일경제기자

인도육상선수중 최초로 동성애 공개하기도

'호르몬 논란' 인도 스프린터 찬드, 도핑 혐의로 4년 자격 정지

하남직 연합뉴스기자

카자흐스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카자흐에 북선수단 파견...국경 개방 '신호탄'?

홍영재 SBS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비공개"라며 불응한 한체대

<앵커>

저희 보도 이후 체육계의 비리를 조사하는 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도 한국체대에 대해 직권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한체대 측은 비공개 정보라며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화강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체육계 미투와 철인3종경기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등이 잇따르자 체육인 인권 보호와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법적 기구로 지난 2020년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스포츠계 비리 전반에 대한 조사 권한이 있는데, 끝까지 판다팀 보도 직후 한국체육대학 직권 조사에 착수했고, 최근 현장 조사까지 진행했습니다.

[박석재/스포츠윤리센터 대외협력관 : (계약금 송금이) 관행처럼 쪽 이어져 왔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체대의 자료 비협조로)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사전 조사를 하고 조사를 개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련 법에는 윤리센터가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가지고 있고, 관련자들은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한체대가 '비공개 정보'라며 이에 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현장 조사가 이뤄진 당일, SBS 취재진과 만난 한체대 담당자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존재조차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체육대학교 담당자 : 오늘 갑자기 오후에 왔길래 '어떤 조직이냐?' 제가 되물었죠. '스포츠윤리센터 뭔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얘기해드리기가 좀 어렵다.']

체육 지도자가 인권 침해나 비리를 알거나 의심만 돼도 즉시 신고하는 의무 규정이 있는데도 한체대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윤리센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박석재/스포츠윤리센터 대외협력관 : (비리나 인권 침해의) 의심이 있을 경우에도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를 한 적은 없습니다]

10년 넘게 자행된 문제가 피해자들의 용기로 드러났는데도 사실 규명을 외면하는 듯한 모교의 모습에 졸업생들은 또 한 번 좌절했습니다.

[한체대 출신 선수 : 애들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과연 이게 바뀔까?' 바뀌었으면 좋겠지만 안 바뀔 거 아니까. 힘들기도 하고.]

김현수 전 인권위 단장 "체조계 계약금, 폐쇄적 문화 때문"

SBS 끝까지판다팀은 체조 선수들이 실업팀에 들어가면 지도자에게 계약금 10%를 내야하는 관행을 보도했습니다.

선수들은 문제의식을 느꼈지만, 체조계의 폐쇄적인 문화로 '계약금 상납 관행'은 계속되어왔고 피해자 중에는 금메달리스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현수 전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장에게 체조계 계약금 관행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취재 : 화강윤 / 구성 : 전형우 / 편집 : 이승진 / 제작 : 디지털뉴스기획부)

출처 : SBS 뉴스

원본 영상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304948&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SEND

20대 여성 성폭행한 실업팀 선수... 퇴직금 1800만원 지급 논란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실업팀 운동선수에게 퇴직금 1800여만원이 지급돼 논란이 일고 있다. 관리·감독 주체인 광주 북구청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았더라도 퇴직금을 제한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실업팀 운동선수 A씨, 20대 여성 성폭행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고상영)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광주 북구청 소속 운동선수 A(3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의 한 주점에서 만난 20대 여성이 투숙 중인 숙박업소에 침입,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밖에 나갔다 왔는데 일행이 잠든 것 같다. 문을 열어달라”며 숙박업소 직원을 속여 여성이 잠들어 있는 방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전반은 인정했지만, 성범죄를 목적으로 숙박업소에 침입한 의도는 없었다며 주거침입 준강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 등을 밝힌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면서 “다만 주거침입 준강간죄를 적용함이 정당하고, 이에 따라 정상참작 감경을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북구청은 A씨 범죄 사실 몰라...팀 훈련 참여

1년 넘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지만, A씨의 관리·감독 주체인 북구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A씨가 소속팀 감독에게조차 범행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올해 동계 훈련과 전국대회 등 팀 훈련에 참여해왔다.

A씨, 올해 초 퇴직금 1800여만원 수령

A씨는 올해 초 “할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병간호해야 한다”며 퇴직 신청을 했다. A씨의 범죄 사실을 모르던 북구는 지난달 31일 A씨를 의원면직(사직) 처리하고 이달 초 퇴직금 등 명목으로 18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북구는 법과 제도의 한계로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기간제 근로자인 A씨의 경우 공무원과 달리 수사기관의 ‘기관 통보’ 대상이 아니어서 본인이 털어놓지 않는 한 수사·재판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북구 관계자는 “A씨가 성실하게 훈련에 참여하는 등 실업팀 감독조차 수상한 점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고 있어 범죄 혐의가 있거나 징계받더라도 퇴직금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면서 “징계 시 퇴직금 지급이 제한되는 공무원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세계선수권 부진 털었다... 한국 양궁, 파리 4차 월드컵 金4

한국 양궁 대표팀이 세계선수권 부진을 딛고 '올림픽 테스트 이벤트' 월드컵 대회에서 명예회복에 성공했다.

양궁 대표팀은 20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앵발리드 공원에서 열린 2023 현대 양궁 월드컵 4차 파리 대회에서 남자 개인전, 남녀 단체전, 혼성 단체전 등 5개 종목 중 4개 종목에서 우승했다. 이달 초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2개(혼성전, 남자 단체전)에 그쳤던 양궁 대표팀은 곧장 치러진 월드컵 대회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로 명예회복에 성공했다. 특히 이번 대회가 내년엔 열릴 파리올림픽의 테스트 이벤트 격으로 열려 선수들 입장에서는 의미가 더 컸다.

여자 양궁대표팀의 강채영(현대모비스), 안산(광주여대), 임시현(한국체대)은 여자 단체전 결승에서 대만을 6-2로 제압하고 첫 금메달을 땀다. 세계선수권에서 1회전 탈락 충격을 경험했던 여자 양궁은 이번 대회에서 아쉬움을 털었다. 이어 열린 남자 단체전 결승에서는 김우진(청주시청), 이우석(코오롱), 김제덕(예천군청)이 대만을 6-0으로 완파했다. 상승세를 이어 혼성 단체전에서는 이우석-임시현이 짝을 이뤄 대만 조를 5-3으로 눌렀다.

남자 개인전 결승에서는 한국 선수들끼리 맞대결을 펼쳤다. '베테랑' 김우진이 이우석을 6-0으로 완파해 정상에 올랐다. 개인전·단체전을 우승한 김우진, 단체전·혼성전 정상에 오른 이우석, 임시현은 나란히 대회 2관왕을 달성했다. 여자 개인전에서는 최미선(광주은행)이 동메달을 땀다.

'호르몬 논란' 인도 스프린터 찬드, 도핑 혐의로 4년 자격 정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육상 여자 100m와 200m에서 모두 2위에 오른 두티 찬드(28·인도)가 금지약물 복용 혐의로 4년 선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일반 남성 수준의 남성 호르몬 수치로 논란을 부르고, 인도 육상 선수 중 최초로 동성애 사실을 공개한 찬드는 도핑 문제로 은퇴 위기에 몰렸다.

타임스오브인디아는 18일(한국시간) "찬드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지 못해 4년 자격 정지 처분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찬드는 지난해 12월 제출한 소변 샘플에서 안다린과 오스타린 등 금지약물 성분이 검출돼 올해 1월에 '일시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찬드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나를 끌어내려라. 더 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결백을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하지는 못했다.

찬드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 2개를 목에 걸며 인도 육상 스타로 떠올랐다. 인도가 여자 100m에서 은메달을 딴 것은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P.T. 우샤 이후 32년 만이었다. 찬드는 여자 200m에서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찬드는 11초17의 인도 여자 100m 기록도 보유하고 있다.

사실 찬드가 세계 육상계에 이름을 알린 건, 실력이 아닌 '호르몬 이슈' 때문이었다. 2014년 7월 세계육상연맹은 "찬드의 남성 호르몬 수치가 기준치보다 높다"며 여자 대회 참가를 무기한 금지했다. 찬드는 체내에서 분비되는 테스토스테론 혈중농도가 10nmol/L(혈액 1리터당 10나노몰. 나노는 10억 분의 1)을 넘어섰다. 일반 여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0.12~1.79nmol/L(나노몰), 남성의 수치는 7.7~29.4nmol/L이다.

당시 세계육상연맹은 "여성으로 보기 어려운 테스토스테론 수치"라고 주장하며 "찬드는 약물 투여 혹은 수술로 수치를 낮춰야 국제대회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찬드는 이를 거부하고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세계육상연맹을 제소했다. 길고 지루한 다툼 끝에 2015년 7월 CAS는 "찬드가 여자 경기에 출전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 덕에 찬드는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했고 이후에도 자유롭게 국제대회에 나섰다. 찬드는 2019년 5월 "고향에서 만난 여성과 5년째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고백해 주목받기도 했다. 인도 대법원은 2018년 9월 '게이 금지법'으로 불리던 '동성 간의 성행위 관련 처벌법'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찬드는 "대법원의 결정 덕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며 "세상 모두가 모두를 사랑할 자유가 있다. 사랑은 거부할 수 없는 감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찬드는 위협을 받기도 했지만, 인도 스포츠 인권의 상징으로 부상하며 인기도 누렸다.

찬드는 지난해 "2024년 파리 올림픽을 끝으로 은퇴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하지만 금지약물 복용 혐의로 4년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찬드의 파리 올림픽 출전은 불가능해졌다.

[단독] 카자흐에 북 선수단 파견... 국경 개방 '신호탄'?

<앵커>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북한 태권도 선수단이 참가해서 시범을 보이는 영상을 저희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코로나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 북한이 선수단을 해외에 보낸 게 이번이 처음인데 이걸 시작으로, 다음 달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도 참가할지 관심입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9일) 저녁 카자흐스탄 태권도 세계선수권 대회 현장, 기합 소리를 내며 달려온 한 선수가 공중제비를 돌더니 송판을 격파합니다. 선수 1명이 4명을 제압하는 무술 시범도 보입니다. 이들은 모두 북한 태권도 선수들입니다. 2020년 1월 코로나19를 이유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 북한 선수단이 해외 대회에 참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회를 주관하는 국제 태권도연맹은 북한이 주도하는 단체입니다.

[제22차 태권도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여러분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SBS가 입수한 영상 속 북한 선수단은 10명인데 이번 대회에는 80명 넘게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왕명국.]

북한 취재진도 선수단과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 선수단은 지난 16일부터 신의주에서 중국 단둥까지는 버스, 베이징까지는 기차, 카자흐스탄까지 비행기로 장시간 이동을 했습니다.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동 방식입니다.

북한은 이번 태권도 대회를 신호탄으로 1달 뒤 중국에서 열릴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도 참가할 가능성이 큼니다. 러시아 매체들은 오는 25일과 28일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 북한 고려 항공의 운항이 예정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3년 넘게 국경을 닫고 인적 교류까지 모두 차단했던 북한이 국경 개방을 본격화하는 거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간 스포츠 소식

비위 끊이지 않는 수원지역 체육계...폭행 등 인권침해 비율 매년 두자릿수

<https://www.therepor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646>

스포츠로 '건강한 신체'·'사회성 향상' 두 마리 토끼 잡는다

<https://www.jjan.kr/article/20230814580089>

돈으로 말하는 빈 살만...석유 팔아 축구에 '올인'하는 이유 [와이즈픽]

https://www.ytn.co.kr/_ln/0107_202308191100013736

[인터뷰] '선수에서 지도자로'...손연재 "리듬체조 대중화, 내 평생 숙제"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40515

'약재 딛고 결선행' 이상혁, 실내외 세계선수권 동반 우승 도전

<https://www.yna.co.kr/view/AKR20230819038300007?input=1195m>

[태평로] 19세 '탁구 신동' 신유빈은 왜 아직 中卒일까

https://www.chosun.com/opinion/taebyeongro/2023/08/21/MG2VHWNBJNCS7LGQHOFKFX7A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여자월드컵 결승골 넣은 선수, 우승 뒤 '아버지 사망' 소식 들어

https://www.ytn.co.kr/_ln/0107_202308210948012882

변경된 경륜 벌점 제도, 어떤 선수에게 유리한가?

<https://mydaily.co.kr/page/view/2023082112424700183>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